

## 2001년 방산정책 심포지엄 개최

### 방산정책 실무 담당 전문가들 연구 발표



**방위** 산업 정책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방위산업 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2001년 방산정책 심포지엄』이 지난 12월 11일 캐피탈 호텔에서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방산정책 심포지엄은 방산정책 실무 담당자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향후 정책입안자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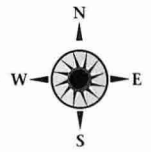
이수익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올해는 9.11 테러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등장하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으로 인해 전 세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한반도는 6.15 공동선언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방보류와 북한 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 등으로 냉각되어 확고한 국가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방산업체의 50%도 안되는 가동률로 야기된 경영난 해소와 핵심기술 획득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방산업계도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침

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매진함은 물론 새로운 각오로 방위산업의 활로 개척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시작된 우리의 방위산업이 어언 30여년간 부단히 노력하여 온 결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 하였고, 국민들에게는 국방에 대한 자긍심과 군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었으며,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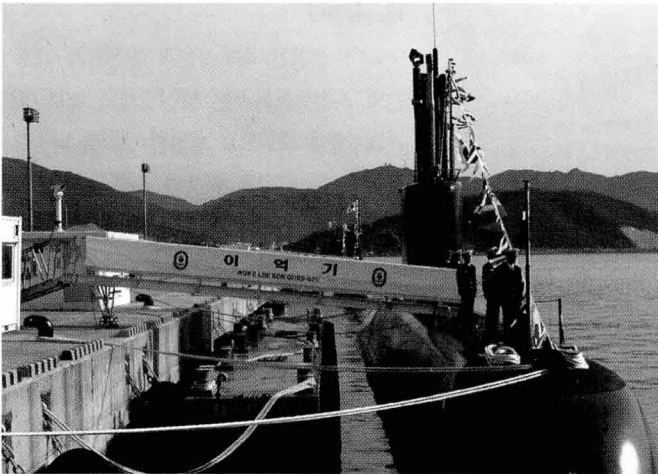
다”고 강조하고, “최근 우리의 방위산업은 내수물량의 한계와 해외수출 부진 등으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경영난 마저 가중되는 등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이재운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정기현 국방부 사업관리관실 사업 1과장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발전방안」, 박윤호 품관소 소프트웨어 부장의 「국제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 방안」, 윤수만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방산지원과 서기관의 「군용장비 부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남성 국방연구원 무기체계센터 연구위원의 「국방획득사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연계방안 연구」의 주제발표와, 김동수 국과연 기계체계부 자주포 체계 팀장, 고순주 삼성탈레스 KDX 전투체계 담당 상무, 최석철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교수, 김성배 국방연구원 무기체계연구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마지막 1200톤급 이억기 잠수함 취역

## 국내 개발 어뢰 장착해 무장능력 향상



**해군** 은 지난 12월 1일 해군 작전사령부내에서 문정일 해군 작전사령관과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9호 잠수함인 이억기함이 해군의 정식 세력으로 출발하는 취역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역한 이억기함은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해 건조된 1,2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30여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으며 수중 최대 속력은 22노트(시속 약 41km)에 대한 유도탄 및 어뢰, 기뢰 등을 장착한 채 2개월간 단독 작전이 가능하다.

특히 해군의 209급 국산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가운데 마지막 호인 이억기함은 국내 자체 개발한 특수 초고장력강판(HY-80)을 사용, 최대 잠항심도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외화절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대함 유도탄과 국내에서 개발한 어뢰를 장착하는 등 무장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국내 9호 잠수함의 함명으로 명명된 "이억기(李億祺)"

는 조선시대 해전에 능했던 장수로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전라 우수사벼슬로 충무공 이순신 제독을 도와 옥포, 당포, 안골포 등의 해전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하는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억기함은 일정기간의 전력화 단계를 거쳐 실전에 배치될 예정으로 해양수호 최첨병 임무를 수행하게 돼 수중전력 보강과 함께 해군 작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은 "장기간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통해 이제 독자설계가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다"며 "지난 15년간 이어져 온 국내 잠수함 건조사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잠수함 기술과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1200t급 잠수함 도입에 이어 독일 HDW 214 잠수함을 모델로 1700t급 잠수함을 들여 올 계획을 확정할 바 있다.

1200톤급 잠수함 사업

함 번호	함 명	취역연도	건 조
SS 061	장보고	1993	HDW, 독일
SS 062	이 천	1994	대 우
SS 063	최무선	1995	대 우
SS 065	박 위	1996	대 우
SS 066	이종무	1998	대 우
SS 067	정 운	1998	대 우
SS 068	이순신	1999	대 우
SS 069	나대용	2000	대 우
SS 070	이억기	2001	대 우

## 방산 간담회 개최

획득실장 주재로 방산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토의



제시하였다.

이러진행된 획득실장과 방산업체 대표 간의 자유토론에서는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업체 건의 사항으로는 수원지관의 공중표적기 적정물량 조달 보장, 방진회의 방산 착·중도금 제도 개선, 대우종합기계의

의 복보증 제도 개선, ETI의 30밀리 자주대공포용 전원 공급기(AP-90K) 규격화 추진, 제일정밀공업의 연구개발(시제) 업체의 구성품국산화 방안, 풍산의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 방안, 대우통신의 방산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이 제기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29일 국방부장관 주재 방산 간담회시 국방부장관이 밝힌 간담회 활성화 계획(연2회 → 연6회)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향후 이를 통해 방산업체와 정부간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12월 6일 국방회관에서 최동진 획득실장 주재로 화력/탄약분야 17개 방산업체 대표와 국방부 관계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현장의 소리 청취 및 방산 현안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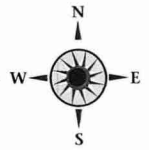
먼저 정책설명에서 국방부는 전문/계열화 정비 방향, '02년도 방산육성기금 지원계획,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정 등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 품관소,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

중기청에서 5억 자금 지원받아 중소기업 육성

**국방** 품질관리소(소장 이원형)가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1일 국방품질관리소는 중소기업청이 그간 추진해

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중기청에서 5억여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컨소시엄 협약식을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각 부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기술 및 신제품 연구개발 등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품질관리소는 군수품 품질보증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보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방분야의 기반 확충에도 동시에 기여하고자 이번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금번 국방품질관리소는 협진정밀 등 14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로켓 추진 기관용 히트 플렉스 센서 제조를 위한 고정장비 개발'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각 과제별 연구와는 별도로 컨소시엄 기초사업으로 전문기술 세미나, 참여기업 간담회 및 전문교육, 품질경영 뉴스레터운영, 국방참여 최신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업체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방품질관리소는 이번 사업참여를 계기로 하여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국방품질관리소의 특성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조화를 이룰 경우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군수품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형 국방품질관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컨소시엄 참여는 국방분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국방부 차원의 중앙부처간 기술협력 및 컨소시엄 사업 창출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이 국방부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컨소시엄 사업 이외에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제품을 상품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군수품 품질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